

‘사회’라는 그릇에 ‘선한 문화’ 담는다

디지털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중요해
가족·인류에 기반 나눔과 사랑 전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앞장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서울종로 하나님의 교회, 겨울방학 학생캠프 일환으로 열린 인성특강에 인근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220여 명이 참석해 흥미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한다. 강의 주제는 ‘나의 사랑의 언어’, 드론택시와 인공지능 챗봇 사진이 띄워진 화면을 배경으로 강연자 박인선 전 광릉중 교장의 질문이 이어진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시대가 가속됐습니다. 이제 ‘무엇’이 ‘실력’인 시대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미래 인재 역량 길러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디지털교육과 함께 중시되는 교육 주제가 ‘인성’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학교 안팎에 인성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대 덕목을 목표로 한다.

학생은 물론 전 연령대를 아울러 올바른 인성을 배양하고 건실한 문화를 전파해가는 종교단체가 있다. 세계 175개국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박진이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효와 예절, 배려와 존중, 관용과 연합 등 바른 인성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가르침은 인성교육진흥법의 8대 덕목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웃과 사회, 나아가 세계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교훈을 바탕으로 ‘선한 문화’를 채워가며,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를 위해 교육, 문화예술 행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꾸린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방학마다 운영하는 학생캠프도 그중 하나다. 성경 교육, 체험학습,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



1 2일, 서울종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인성특강. 박인선 전 광릉중 교장이 ‘나의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강연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 지난해 12월, 하나님의 교회가 브라질 국회 입법공로훈장을 수훈했다. 현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링곤 포르텔라 연방하원의원 제1부의장(왼쪽)이 총회장 김주철 목사(중앙)에게 메달과 훈장장을 수여했다. 수상 후보로 하나님의 교회를 추천한 시드니 레이치 하원의원(오른쪽)도 참석해 상을 축하했다. 3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말레이시아대에서 열린 힐링세미나 및 연주회. ‘가장 소중한 선물, 가족’을 주제로 희망적인 음악과 사연들이 소개됐다.



로그램 중 특히 전문가 초청 인성특강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인기가 있다.

국내에서만 100여 차례 진행됐고 3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문정민(17, 김해) 군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언어표현에 주의해야 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해외 교회에서도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12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자신, 타인, 사회에 대한 ‘존중’을 주제로, 앞서 1일 페루 리마에서는 세계적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재직시절, 학교폭력 근절 모범학교를 이끌었던 박인선 전 교장은 “인성교육에 실제 체험이 동반되면 아이들에게 같은 조절 역량이 쌓여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나도록 인성교육 기회가 자주 제공되기를 기대했다. 또 “문제 해결 역량의 기초체력은 가족 간 좋은 관계에서 비

롯된다”며 “사회의 핵심인 가정의 건강할 때 사회도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가족에 고취, 인류에 기반 ‘나눔’ 문화 전파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가족화목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10년째 이어온 가족에 주제 전시를 비롯해 연주회, 세미나 및 포럼, 가족초청행사, 캠페인, 온라인채널 운영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 지난해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여온 힐링세미나는 전시회와 더불어 이 교회의 대표적인 가족친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 수원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지에서도 개최됐다. 희망적인 음악과 가족 사랑에 대한 몽클란 사연들이 어우러진 형식이다.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대에서도 각계각층 시민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세미나 및 연주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선웨이대의 리옹유엔영 교수는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뿐 아니라 문화, 스포츠,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꾸는 공동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진정성 있는 영향력에 큰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며 감동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한 선한 문화의 큰 축으로 ‘나눔’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교회가 설립된 각국에서 직장인, 주부, 대학생, 중고생 할 것 없이 긴급구호, 취약계층 지원, 헌혈, 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봉사에 참여한다. 올 설에도 매년 명절마다 힘겨운 이웃들을 챙겨온 사랑나눔 일환으로 전국 약 220여 관공서를 통해 저소득 4720세대에게 겨울 이불(2억5000만원 상당)을 전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도 앞장선다. 지난해만 도 국내 폭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강원도 산골 성금(1억 원) 지원을 비롯해, 통가 화

산폭발 구호성금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수해복구, 100년 만의 눈폭풍이 발생한 미국 일리노이주 피해복구 등 각국 이재민들의 재기를 도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그간 구호성금, 방역물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교회 신자들이 전개해온 교육, 의식중진 행사,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은 2만 4200여 회. 여기에 세계인 282만6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웃과 사회, 국가와 세계에 인류애를 나누며 ‘선한 문화’를 전파해온 인도주의 행보에 각국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는 3500회 넘게 상을 수여하며 지지를 보내왔다.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금상 53회),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국가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공헌을 인정받아 국회 최고상인 입법공로훈장을 받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인류 위한 대속의 사랑 담긴 새 연약 유월절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한복음 3장 16절)가 종종 꼽힌다. “독생자를 주셨으니…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 희생으로 치른 대속(代贖·대신 치름)을 치름의 사랑임을 내포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이 같은 숭고한 사랑을 기반으로 인류가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제정된 절기가 ‘새 연약 유월절’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는 십자가 고난 전날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며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는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로 지칭하고 이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영생)을 약속했다(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6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은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삶과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재앙에서 보호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월절(逾越節·Passover)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담긴 하나님의 절기다. 날짜는 성력 1월 14일 저녁으로 양력 3~4월 경에 해당한다. 3500년 전 구약시대 애굽(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해 유월절 대성회를 집전하고 있는 총회장 김주철 목사.

하나님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켜, 집집마다 장자(長子)가 죽는 큰 재앙에서 보호받고 자유를 얻은 역사에서 유래한다(출애굽기 12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새 연약의 유월절은 베드로, 요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지켜졌으나, 교회가 세속화하면서 325년 니케아회의를 통해 폐지됐다. 오늘날 새 연약 유월절을 회복해 성경 그대로 지키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하다.



페루 카하마르카주 셀린던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 심기를 진행한 ASEZ WAO 회원들.



아르헨티나 티그레스에서 벽화그리기 봉사를 하는 ASEZ 회원들. 낙서 있는 벽을 따라 수풀과 쓰레기가 방치돼 있던 1km구간이 밝고 화사하게 복구됐다.

하나님의 교회 청년 봉사단이 보여준 ‘미래 희망’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올해도 열고 싶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시의 인텔아메리카나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 봉사단 ASEZ(아세즈)가 진행한 범죄예방 인성교육을 올해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데다 수업 참관 교사들의 적극적 추천과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3학기 약 30교시로 진행된 이 수업은 아세즈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함께하는 범죄예방(Reduce Crime Together·이하 RCT)’ 일환이다. 미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 각국과 국내 서울, 부산, 전북 익산 등지 중교에서도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전 세계에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기반으로

로 활동하는 대학생 봉사단 아세즈와 직장인 청년 봉사단 ASEZ WAO(아세즈와오)가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아세즈는 RCT 프로젝트로 범죄예방 인성교육 외에도 지자체와 연계해 벽화 그리기, 나무 심기, 정화운동 등 범죄예방설계(CPTED)에 기초한 환경개선활동을 52개국에서 1060여 차례 이어왔다.

아세즈와오는 Green Workplace(직장 내 친환경생활) 캠페인을 비롯해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심기 등을 벌이며 세계인의 환경의식을 일깨운다. 전 세계에 푸른 숲을 가꾸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명의 터전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Mother’s Forest(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4개국에서 나무 1만여 그루를 심었다.

청년들은 아이디어 개발부터 대상지 조사,

지자체와 MOU 체결, 봉사 시행 등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배영찬(원광대) 씨는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인권, 범죄, 환경문제였지만 이제는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알리산드리아 코스타(필리핀·필리핀대) 씨는 다른 나라 회원들과 교류 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단결과 유대를 느꼈다”며 “공동체 병폐를 방관하기보다 직접 개선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 어린 실천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상, 국제환경상인 그린월드상과 그린애플상,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금상) 등 수상이 잇따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8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있다. 양형모 기자